



윤곽 드러낸 광주 U대회 선수촌 '2015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 개막을 9개월여 앞둔 7일 선수촌으로 활용될 서구 화정동 현대힐스테이트아파트 외관 마무리 공사가 한창이다. 기존 화정주공아파트를 재건축한 이 아파트는 현재 66%의 공정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내년 3월 완공 예정이다. > 관련기사 5면

## 나눔티켓

### '나눔 티켓' 이용률 광주·전남은 1% 90% 이상 수도권에 집중

저소득층의 문화향유를 위한 나눔 티켓이 수도권에만 90% 이상 집중돼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7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인 새정치민주연합 박홍근 의원에 따르면 2012~2014년 3년간 나눔 티켓 이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것으로 드러났다.

수도권 집중 현상은 2012년 87.7%에서 2014년 90.3%로 해를 거듭할수록 늘어나고 있다.

반면, 광주(0.76%)와 전남(0.14%), 전북(0.21%)을 비롯, 대구·충남·제주·경남·경북은 이용률이 1% 미만으로 저조한 실적을 보였다.

광주·전남은 민간단체의 나눔티켓 뿐 아니라 국립공립 공연단체의 기부실적도 사실상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은 최근 3년 간 국립공립 공연단체의 기부실적이 단 한 건도 없었으며, 광주 또한 2012년과 2013년 각 1건에 그쳤고, 올해 실적은 '0'였다.

이같은 현상은 전국 공연시설 가운데 절반 이상인 53.9%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기도 하지만, 이를 감안하더라도 지방 국립공립단체의 기부가 저조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나눔티켓은 저소득층의 문화 체험 기회를 주기 위해 한국문화예술회원회가 문화예술단체로부터 객석을 기부받아 저렴한 가격으로 공연과 전시를 관람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제도다.

> 최원일기자 cki@kwangju.co.kr

## 소통·공유 두 바퀴 '상생' 향해 달린다

### 민선 6기 100일...광주시정·전남도정 패러다임 변화 상명하복→수평적 리더십, 지역간 협력, 복지 강화도

민선 6기 100일을 맞아 광주시와 전남도가 '소통과 공유'라는 패러다임 아래 지역간 상생과 복지 강화에 온 힘을 쏟고 있다. 시민 중심의 행정을 표방한 윤장현시장의 첫 번째 기치는 소통이었다. 특히 윤 시장은 시정을 포함한 광주시의 모든 것은 애초 '시민의 것'임을 강조하며, 시청의 공간과 행정에 대한 시민들의 공유 확대를 진행하고 있다.

윤 시장은 시민과의 소통·참여 강화를 위해 514명으로 구성된 '광주공동체시민

회의'를 발족했다. 또 시민들이 도시의 정책 방향을 논의하고 구체적 실행 과제를 결정하는 직접 민주주의 실험 마당인 '시민 아고라 500'도 성황리에 마쳐 시민시장으로서의 면모도 과시했다.

전남도와 22개 시·군의 단체장들도 조직 내 소통을 강조하고 있다. 이낙연 전남지사는 도정의 '공유'를 위해 지금까지 4차례 정례조회에서 직원들에게 "저는 여러분을 가졌고, 여러분은 저를 가졌다"며 직원들을 다독거렸다. 담양군 등 다른 일

선 시·군도 잇따라 직원과의 대화를 갖고 있다. 과거 일방통행식의 지나간 강제의 부작용을 없애기 위해 대화의 통로를 열어 두면서 동시에 공평한 인사와 청렴을 강조하고 있다.

광주와 전남이 전북과 함께 광역적인 범위에서 상생을 모색하고 있는 점도 주목할 만한 대목이다. 이와 맞물려 전남지역 각 시·군이나 권역별 지자체들 사이에도 상생 바람이 불고 있다.

광주와 전남이 나주 빛가람혁신도시의 선례를 통해 영산강을 주제로 '상생'을 이야기하고, 전북이 포함된 호남권정책협의 회도 6년 만에 재가동됐다. 그동안 행정구역이라는 '벽' 사이에 두고 각자의 길을

모색했던 화순군과 광주 동구·남구 등이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 한목소리를 내고 있으며, 전남 동부권의 여수·순천·광양도 함께 지역문제 해결에 나섰다.

'상생'이 민선 6기에 전면에 등장한 것은 위축된 호남의 재도약, 주민 불만 해소, 행정·재정력 집중 등의 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서민들의 실질 생활을 향상시키려는 복지행정도 눈길을 끈다. 광주시는 시민이 적정 수준의 복지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광주시민복지기준'을 마련해 시행키로 했으며, 이웃·동네가게·행정이 참여해 마을의 어려운 이웃을 돕고 마을경제를 살리는 '마을형 복지공동체'도 구축할 방침

이다. 노인돌봄서비스와 노인일자리 창출에도 전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이다.

전남도는 100원 택시와 시·군버스 공영제를 실시할 예정이며, 이르면 올해 안에 곡성군과 화순군이 100원 택시를 실시할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도 공공형 산후조리원, 찾아가는 영화관 등도 농산어촌 거주민들을 위한 대표적인 복지공약이다.

윤장현 광주시장은 "100일 동안 다양한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었다"면서 "시민중심의 자치행정, 토론을 통한 상향식 풀뿌리 행정, 상생 등을 통해 더불어 사는 열린 공동체를 실현토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 취임 100일 기자회견

취임 100일을 맞이한 윤장현 광주시장과 이낙연 전남지사는 7일 '당당하고 따뜻하고 넉넉한 광주'와 '청년이 돌아오는 전남 건설'을 핵심 정책 방향으로 정하고, 민선 6기 대표공약을 발표했다.

<관련기사 2·3면>

윤 시장은 이날 광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광신대학교 설립 60주년 기념 선교대회**  
일시: 10월19일(주일)~22일(수요일)  
장소: 광신대학교, 광주신일교회  
문의: 062)605-1000

### 윤장현 시장 "당당하고 넉넉한 광주" 이낙연 지사 "청년이 돌아오는 전남"

'민선 6기 100일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중심의 자치행정, 토론을 통한 상향식 풀뿌리 행정, 상생 등을 통해 사람이 먼저인 열린 공동체를 실현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면서 "더불어 사는 광주, 더불어 행복한 시민" 구현을 위한 3대 시정방향과 6대 분야 84개 과제로 구성된 공약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윤 시장은 "지난 100일 동안 현장에서 다양한 시민의 목소리를 들었으며, 무엇보다도 지역의 먹거리를 만들어내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는 결론을 내렸다"면서

"우선 자동차산업 벨리 육성을 통해 자동차 관련 신규 산업이 유치될 수 있도록 산단을 조성하고 행정환경도 정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윤 시장은 이를 위해 "신설된 사회통합추진단을 중심으로 네덜란드의 노사정 대타협과 독일 슈투트가르트 모델을 응용한 신규 일자리 창출에 나서겠다"면서 "특히 연평균 4000만원대 수준의 사회연대 임금기반을 구축하면 기업들이 해외로 나가지 않고 광주에서 투자하게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윤 시장은 또 시민 복지와 관련된 공약으로는 "소득, 주거, 건강, 돌봄, 교육 등의 분야에서 광주만의 시민 복지기준을 마련해 복지사각 지대에 놓인 빈곤 저소득층의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겠다"면서 공동체형 주택을 재생하는 방안을 도입, 공동체를 회복하고 거주자 맞춤형의 질 높은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약속했다.

이낙연 전남지사도 이날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생명의 땅, 청년이 돌아오는 전남"을 민선 6기 도정 목표로 정하고, 지난 100일 동안 도민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면서 "이를 바탕으로 대표 공약 76개를 확정했으며, 지역의 동력이 될 인구를 200만명 수준으로 회복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를 위해 "지역대학 졸업자

들이 지역기업에 취업하면 혜택을 주는 방안 등 청년 일자리를 늘리는 지원책을 검토 중이며, 전남의 섬과 해안선, 갯벌 등 기존 자산의 소중하게 활용하는 계획도 구체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10월 중에 바다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알리기 위해 '동북아연안 네트워크'를 발족하고 도·시군 추진협의회를 구성해 '가고 싶은 섬 가꾸기 10개년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윤속의 전남 10개년 조성계획'을 다음달까지 수립하기로 했다.

이 지사는 또 호남권 상생발전과 관련해 "가난할수록 형제간에 우애가 있어야 하는데 현실은 부자동네가 우애하는 것 같다. 호남의 위상이 높아지는 데 선명을 바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박진표기자 lucky@

### 조대부고 총동창회 친선 체육대회

먹는 것 산이거든 무느곤 못 가라!

- 일시: 2014. 10. 19(일) 09:30
- 장소: 모교운동장
- 전화: 062-224-1461

조선대학교부속고등학교 총동창회장 이 민 수

**끌어올리세요 당신의 아름다움**  
헤라 모디파이어

새롭게 업그레이드 된 헤라 모디파이어- 탄력의 중심에 작용해 매끈하고 탄탄한 피부로 한 차원 올려줍니다. 이제 당신의 아름다움에 사람들의 시선이 향합니다.

HERA  
MODIFIER  
Cell-Bio Layer Balm  
ANTI-WRINKLE REVITALIZING FIRMNESS

\*유량변화침이나 이오라 카운셀러를 통해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고객상담실 090-023-5454(수신료유감면) www.hera.co.kr